

괴력 난신 을 말하라

MIRACLES,
VIOLENCE, DISORDERS
AND SPIRITS

서울시립미술관의 <미디어시티서울> 2014와
경기문화재단 <국제워크숍 및 아카데미>의 공동행사로
펼쳐지는 '괴력난신을 말하라'는 강연, 워크숍, 공연 등으로
이루어진 복합적인 컨퍼런스이다. <미디어시티서울>
2014와 경기문화재단의 공통 관심사인 아시아 역사와
문화를 '귀신, 간첩, 할머니'라는 키워드를 통해 살펴본다.

공자는 '괴력난신'을 말하지 말라고 했지만,
폭력과 재난이 일상화된 현대 사회에서 '괴력난신'
이야말로 주된 화두가 아닐 수 없다. 컨퍼런스는
대주제에 대한 학술적인 증명보다는, 기이함, 폭력,
혼란, 영혼과 관련된 구체적인 소재와 사건, 작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될 것이다. '괴력난신을
말하라'는 <미디어시티서울> 2014와 경기문화재단이
함께 여는 행사이다.

1

왜 귀신 간첩 할머니인가?

Why Ghosts, Spies and Grandmothers?

컨퍼런스의 문을 열고, 이후 토론의 방향을
가늠하는 자리이다. 박찬경은 <미디어시티서울> 2014와
'괴력난신을 말하라'의 주제를 하나하나 짚어나간다.
양혜규와 정도련은 방울을 사용하는 양혜규의
최근 작업에 나타난 미학적 기획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한다. 박노자는 조르게 간첩단 사건에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아시아 냉전/열전의 실상을 들여다 본다.
박노자의 강연은 요네다 토모코의 사진 연작 <평행하는
타인의 삶-조르게 간첩조직과의 조우>의 이해를 넓힌다.

2

괴력난신

Miracles, Violence, Disorders and Spirits

식민의 역사를 경험한 타이완을 소설가
리앙은 '타이완의 빙의'라 부른다. 리앙은 여귀의 눈으로
타이완 근현대사를 보는 소설 『눈에 보이는 귀신』을
쓰게 된 경위를 들려준다. 최원준은 북한의 만수대
창작사가 아프리카 각국에 세운 기념비를 통해, '폐쇄적
독재'의 북한문화를 오히려 국제주의의 시각에서 다룬다.
『극장국가 북한』의 저자 권현익은 베트남의 할머니 귀신
'바 바 린(Ba Ba Linh)'을 통해 작은 존재가 불러온 거대한
공감의 윤리에 대해 말한다.

3

소리의 저편

From the Other Side of Voice

여성의 말과 노래, 소리를 듣고 얘기하는
자리이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등의 라디오
프로그램으로 유명한 최상일 프로듀서와 작가 김지연은,
할머니의 노동요, 민요, 잡담, 무가 등을 재구성해 소리
저편에 존재하는 여성의 힘과 시간을 청중과 함께
나눈다. 정은영은 춘향가 속에 당대의 계급의식을
뒤흔드는 부단한 투쟁이 담겨 있다는 것을 새로운 창극의
형식으로 해석한다. 이용우는 김추자와 아시아 디바들의
미시적 연대기를 통해 '청각-근대성' 비판의 새로운
공간을 찾아낸다. 데이비드 테는 냉전시대의 유명학을
동남아시아의 미디어아트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4

오래된 미디어

Old Media

김용언은 영화와 정치문화에서 할머니가 재현되는 방식을 돌아보며, 상투화된 '할머니' 이미지를 찢고 나오는 공포와 히스테리의 여성성을 그려본다. 지엔홍 후양은 타이완 미디어아트와 유령성의 정치에 대해 논한다. 정서영은 <미디어시티서울> 2014에 출품한 조각-설치 <일시적으로 모은 오래된 문제들>과 최근 작업에 이르는 일련의 미학적 과정을 밝힌다. 정은영의 <칼잡이들>은 여성국극을 기초로 한 '강연-공연'으로 성별에 관한 '자연화된' 규범을 위반하고 성별정치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다. 박찬경은 미술에서 역사적 진술의 재구성, 기억과 정보의 배치 등에 대해 워크숍을 진행한다.

5

동아시아 신화, 교육, 미술

East Asian Mythology, Education and Art

교육학자 김인회는 80년대를 통해 한국의 주요 굿판을 비디오로 기록했다. 그에게 굿은 어떤 교육적 가치와 대안을 제시했던 것일까? 신화학자 정재서는 여신 서왕모(西王母)에 대해 일별(一瞥)한 다음, 부재 혹은 귀환하지 않은 동아시아의 신화를 화두로 상상력의 정치학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이로부터 주술적 감수성에 바탕한 정경교융(情景交融)의 동아시아 예술론을 모색한다. 이 섹션에는 주제와 독립적으로 민정기, 최진욱, 박진아의 회화에 대한 대담이 이어진다.

6

구술과 증언의 예술

The Art of Oral Statement and Record

개인 구술사 방식의 글쓰기와 그리기는 그 풍부한 세부를 통해 역사를 우리의 몸 가까이 가져온다. 소설가 공선옥은 간첩일지도 귀신일지도 모를 어떤 할머니와의 특별한 조우를 기억해낸다. 조해준과 그의 아버지가 전하는 근현대사는 다성학(polyphony)의 역사서술이 지닌 힘과 가치를 보여주며, 강박적으로 일반성과 객관성을 주장하는 현대의 서사에 저항한다. 박찬경과 김종길은 비엔날레 큐레이터ship에 나타나는 한국과 아시아 미술의 전략들에 대해 좌담을 나눈다.

▽ 박찬경 Park Chan-kyong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 서울> 2014 예술감독이자 작가, 영화감독이다.

▽ 양혜규 Haegue Yang

조각이나 설치 등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 두드러지는 양혜규의 작업은 종종 역사적인 인물이나 사건들의 실체를 강조하는 독특하고 자율적인 추상 언어로 귀결된다. 미국 워커아트센터(2009), 오스트리아 브레겐츠미술관(2011), 영국 모던아트옥스퍼드(2011), 독일 하우스데어쿤스트(2012)와 같이 세계적으로 우수한 미술관에서 개인전을 가졌으며, 베니스 비엔날레(2009), 카셀 도큐멘타(2012) 등의 국제적인 미술 플랫폼을 통해서도 작품이 소개되었다.

▽ 정도련 Doryun Chong

정도련은 샌프란시스코 아시아 미술관(1999~2000), 미니애폴리스 워커아트센터(2003~2009)에서 큐레이터로 경력을 쌓은 후, 뉴욕 MoMA에서 회화와 조각부 부큐레이터(2009~2013)로 재직하였다. 현재는 2018년 홍콩에서 오픈 예정인 시각문화박물관 M+의 수석 큐레이터로서 컬렉션, 전시, 심포지엄, 교육과 해석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동시에 박물관 건물 디자인을 맡은 스위스 헤르초크 & 드 뫼롱 건축사무소의 팀과 협업하고 있다. 또한 M+가 주관하는 2015년 56회 베니스 비엔날레 홍콩관에 출품할 창킨와의 개인전을 공동 기획하고 있다.

▽ 박노자 Vladimir Tikhonov

구 소련 레닌 그라드 출신으로 1994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에서 한국 고대사로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동일한 전공으로 1996년에 모스크바 국립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러시아 국립인문대 비상근강사(1996)를 거쳐 경희대 강의전임강사(1997~2000), 오슬로대 부교수(2000~2006)를 역임했으며, 현재 오슬로대 정교수이다. 주된 관심사는 한국의 초기 민족주의 사상사, 사회진화론 사상 등이다. 주요 저서로는 『당신들의 대한민국 1』, 『당신을 위한 국가는 없다』, 『좌파하라!』 등이 있다.

▽ 리앙 Li Ang

리앙은 오늘날 타이완을 대표하는 페미니스트 작가로 손꼽히고 있으며, 자유의 문제, 성과 정치, 저항의 관계를 파고드는 도발적이고 과감한 작품세계로 타이완 문단에서

부동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대표작으로는 『미로의 정원』, 『베이강의 향로에는 누구나 향을 쫓는다』, 『자서전: 소설』, 『눈에 보이는 귀신』 등이 있다. 2004년 문학적 성과를 인정받아 프랑스 문화부로부터 '예술문학기사훈장'을 수상하였다.

▽ 최원준 CHE Onejoon

최원준은 최근 몇 년간 아프리카와 남북한의 관계에 집중하며 한반도의 냉전을 새로운 지정학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작업을 시도한다. 주요 작업으로는 <텍사스 프로젝트>(2004~2007), <타운하우스>(2006~2010), <물레>(2011) 등이 있다. 서울의 아뜰리에 에르메스, 플라토 미술관, 파리의 팔레 드 도교, 케브랑리 박물관, 베니스 건축비엔날레 한국관 등에서 열린 다수의 전시에 참여했다.

▽ 권현익 Heonik Kwon

권현익은 사회인류학을 전공했다. 현재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 트리니티 칼리지의 석좌교수이다. 런던정경대학에서 재직했었고, 서울대학교에 초빙교수로 있다. 시베리아와 베트남에서 현지조사를 했고 근래에는 한국전쟁의 현재적 역사에도 관심을 두고 글을 쓰고 있다. 저서로는 『학살 그 이후』, 『또 하나의 냉전』, 『극장국가 북한』(공저) 등이 있다.

▽ 최상일, 김지연 Sang-il Choi, Jiyeon Kim

최상일은 1981년 MBC 프로듀서로 입사했다. 『한국민요 대전』, 『북한민요전집』을 발행했으며, 2002년에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로 백상출판문화상 저작상을 수상했다. 현재 '세계의 전통음악',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등의 라디오 프로그램을 연출하고 있다. 김지연은 보이지 않고 형태가 없지만 뚜렷이 존재하면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자연현상을 소리와 시각매체로 다뤄왔다. 그녀의 작업은 카페 오토(런던), 아우스란트(베를린), 스타지오네 디 토폴로(토폴로) 등에서 소개되었다.

▽ 정은영 siren eun young jung

정은영은 이름 모를 개개인의 들끓는 열망이 어떻게 세계의 사건들과 만나는지, 그것이 어떻게 저항이 되거나 역사 혹은 정치가 되는지에 관심이 있다. 2008년부터 여성 국극 배우 공동체를 추적하는 <여성국극 프로젝트>를 진행해왔고, 이 작업으로 에르메스 미술상(2013)을 수상했다. 『시연』(2010)을 비롯한 세 번의 개인전을 가졌으며, 국내외 다수의 기획전과 페스티벌에 참여했다.

▽ 이용우 Yongwoo Lee

이용우는 미디어 문화 역사연구자이다. 코넬대 아시아학과와 인문사회연구소 객원교수(2010-2013) 및 동경대 정보학한 특별 연구원 역임(2006-2007) 하였다. 현재 레이던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에서 비판적 미디어문화연구, 냉전기 동아시아 소리 및 영상문화, 후식민주의적 역사서술방식과 번역의 문제, 집단 무의식과 트라우마, 프로파간다로서의 대중문화에 관한 연구 및 강의를 병행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동아시아 대중음악을 통해 식민지주의의 연속성과 청각적 근대성의 역사문화적 형성과정을 살펴볼 『제국 사이에 놓인 식민지 목소리들』을 집필 중이다.

▽ 데이비드 테 David Teh

데이비드 테는 싱가포르 국립대학 영문학과에서 비평이론과 시각문화를 가르치고 있으며 주로 동아시아의 동시대 미술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는 방콕을 중심으로 독립큐레이터와 비평가로 활동했으며, 『비현실적인 아시아』(독일 오버하우젠 단편영화제), 『비디오 볼텍스』(인도네시아 족자비엔날레) 등의 전시 기획에 참여했으며, 현재 방콕의 짐통슨아트센터에서 전시를 기획 중이다. 싱가포르 길만 바락 지구에 위치한 갤러리이자 프로젝트 플랫폼인 퓨처 퍼펙트를 운영하고 있다.

▽ 정서영 CHUNG Seoyoung

『큰 것, 작은 것, 넓적한 것의 속도』(일민미술관), 『사과 vs. 바나나』(현대문화센터 모델하우스/김킴 갤러리), 『미스터 김과 미스터 리의 모험』(LIG 아트홀), 『괴물의 지도, 15분』(갤러리 플랜트), 『책상 위면에는 머리가 작은 일반뿔을 사용하도록 주의하십시오. 나사뿔을 사용하지 마십시오』(아뜰리에 에르메스), 『모닥불을 거기에 내려 놓으시오』(포르티쿠스) 등 9회의 개인전을 열었고, 광주비엔날레(2002, 2008),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2003) 등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 김용언 Kim Yong-eon

연세대학교 영문학과와 동대학원 비교문학과 협동과정으로 졸업했다. 영화 전문지 『키노』, 『필름 2.0』, 『씨네21』에서 기자로 일했으며, 장르문학 전문지 『판타스틱』의 수석 에디터와 인터넷 신문 『프레시안』의 서평 섹션 '프레시안 books' 팀장을 거쳤다. 옮긴 책으로는 노라 에프론의 『철들면 버려야 할 판타지에 대하여』와 마이클 더다의 『코난 도일을 읽는 밤』, 지은 책으로는 『범죄 소설』과 『다시 동화를 읽는다면』(공저) 등이 있다.

▽ 지엔홍 후앙 Chien-hung Huang

파리 8대학 철학 박사 학위(2004)를 이수하였으며, 이미지-예술 이론 및 현대 철학이론 전문가로 현재 타이베이 국립예술대학 융합예술대학원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최근에는 《트랜스-플렉스》(관두미술관), 《아름다운 서계: 생존의 춤》(풀필프로젝트스페이스), 《크러시 온 EMU》(타이베이 현대미술관), 《정신분열증 타이완 2.0》(아르스 엘렉트로니카) 등의 전시를 기획하였다. 저술로는 『몽타주의 미소』, 『트랜스-플렉스 아젠다』, 『독립적 담론』 등이 있다.

▽ 김인희 Kim In-whoe

김인희는 한국의 교육학자이자 민속학자다. 2003년 2월 정년 퇴임한 뒤 연세대학교 교육학과의 명예교수로서 강의하고 있다. 1960년대 말 한국 전통신앙인 무속을 교육학에 응용한 다수의 논문과 저서를 발표했고, 1980년대 초반부터 현장 연구의 일환으로 전국의 굿판을 다니며 영상으로 기록했다. 특히 사진가 김수남과 함께 『한국의 굿』 시리즈의 일부를 공저하는 등 한국 무속 연구에 크게 기여했다.

▽ 정재서 Jung Jae-Seo

신화학자, 문학평론가이며 현재 이화여대 중문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일찍이 동양신화의 고전인 『산해경(山海經)』을 역주하였고, 저서 『정재서 교수의 이야기 동양신화』는 동양신화를 대중적으로 확산시키는 데에 큰 영향을 미친 바 있다. 주요 저서로 『불사의 신화와 사상』, 『동양적인 것의 슬픔』, 『사라진 신들과의 교신을 위하여』 등이 있으며 1994년에 한국출판문화상 저작상, 2008년에 비교문학상과 우호학술상을 수상했다.

▽ 민정기 Min Joung-Ki

《12월전》, 《제3그룹전》, 《현실과 발언 동인전》 등에 참여한 민정기는 도시의 풍경, 그 속의 삶 등을 형상화하는 작업을 해왔다. 1990년 양평으로 작업실을 옮긴 뒤 그곳의 풍경과 역사가 담긴 고지도, 마을지 등을 참조한 작업을 하면서, 자연뿐 아니라 환경, 마을, 도시, 인간의 삶 등을 폭넓게 다뤄왔다. 민정기의 작품은 금호미술관, 서울역사박물관, 경기도미술관, 인사아트센터 등에서 전시되었다.

▽ 최진욱 Choi Gene-uk

최진욱은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 아르코미술관, 대안공간 풀, 일민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등에서 개인전을 열었고, 광주비엔날레(2002)를 비롯해 《진경산수-그 새로운 제안》(국립현대미술관), 《히든트랙》(서울시립미술관) 등 다수의 기획전에 참여했다.

▽ 박진아 Jina Park

박진아는 《네온 그레이 터미널》(하이트컬렉션), 《한 사람과 한 사람》(원앤제이갤러리), 《스냅라이프》(성곡미술관) 등의 개인전을 가졌으며, 그 외 제 7회 광주비엔날레 《연례보고: 일년 동안의 전시》, 《에르메스미술상 2010》(아뜰리에 에르메스), 《투과된 관점》(뉴욕 두산갤러리), 《역병의 해 일지》(아르코미술관), 《시대의 눈-회화: 멀티-페인팅》(OCI미술관) 등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하였다.

▽ 김종길 Gim Jong-gil

경기문화재단 정책개발팀장이자 미술평론가이다. 저서로는 『포스트 민중미술 샤먼/리얼리즘』이 있다.

▽ 공선옥 GONG SUN OK

소설가인 공선옥은 1991년 창작과 비평에 중편 『씨앗불』을 발표하며 등단하였다. 여성의 운명적인 삶과 모성애를 뛰어넘는 구성력으로 생생히 그려낸다는 평을 받는다. 대표작으로 『수수밭으로 오세요』, 『붉은 포대기』, 『유랑가족』 등이 있으며, 1995년 신동엽 창작기금을 받았고 2014년에는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을 수상했다. 소설집 『명량한 밤길』의 성과를 높이 평가 받아 제1회 백신애 문학상의 수상자가 되었으며, 2009년도에는 만해 문학상을 수상했다.

▽ 조해준 Haejun Jo

조해준은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전문사 조형예술과를 졸업하였다. 2009년 독일에서 작업 활동 중 공공미술과 미시역사에 대한 관심을 갖고, 뉘른베르크 쿤스트 아카데미에서 예술과 공공공간으로 석사 과정을 취득하였다. 이후 르포르타주 드로잉 및 리서치 작업을 기반으로 한 연구를 위해 슈투트가르트 국립 조형예술대학 프라이어 그래픽 연구과정을 졸업하였다. 저서로는 『뜻밖의 개인사-한 아버지의 삶』, 『놀라운 아버지 1937~1974』 등이 있다.

장소 / 날짜	23 / THU	24 / FRI	25 / SAT	27 / MON	28 / TUE	29 / WED	30 / THU
서울시립미술관 Seoul Museum of Art	왜 귀신 간첩 할머니인가? 박찬경 양혜규, 정도련 박노자	괴력난신 1 리앙 최원준 권현익	소리의 저편 1 최상일, 김지연 정은영 이용우		오래된 미디어 1 정서영 김용언 지엔홍 후앙	동아시아 신화, 교육, 미술 김인회 / 정재서 민정기, 최진욱 박진아	
계원예술 대학교 Kaywon University of Art and Design				괴력난신 2 리앙 권현익 최원준	소리의 저편 2 최상일, 김지연 이용우 데이비드 테	오래된 미디어 2 박찬경 지엔홍 후앙 정은영	구술과 증언의 예술 박찬경, 김종길 공선옥 조해준

통역 . Interpretation

C ▶ K

중-한 순차통역
Chinese-Korean
consecutive interpretation

E ▶ K

영-한 순차통역
English-Korean
consecutive interpretation

장소 . Venue

Ⓢ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Seoul Museum of Art

Ⓚ

계원예술대학교 조형관
Kaywon University of Art and Design,
Fine Art Building

All programs are conducted in Korean.

Consecutive interpretation will be provided from other English and Chinese to Korean.

왜 귀신 간첩 할머니인가? Why Ghosts, Spies and Grandmothers?

4pm - 4:50pm	박찬경 Park Chan-kyong	왜 귀신 간첩 할머니인가? Why Ghosts, Spies and Grandmothers?	10 23 木
5pm - 6:50pm	양혜규, 정도련 Haegue Yang, Doryun Chong	궤도와 공명 Orbit and Resonance	
7pm - 8pm	박노자 Vladimir Tikhonov	회색지대의 스파이들 Spies in the Gray Zone	서울시립미술관 Ⓢ

괴력난신 1 Miracles, Violence, Disorders and Spirits 1

4pm - 5:20pm	리앙 Li Ang	(중-한 순차통역) C ▶ K	왜 여귀를 볼 수 있는가? Why the Female Ghosts Can Be Seen?	10 24 金
5:30pm - 6:50pm	최원준 CHE Onejoon		만수대 마스터 클래스 Mansudae Master Class	
7pm - 8:30pm	권현익 Heonik Kwon		친근한 이방인 The Intimate Strangers	서울시립미술관 Ⓢ

소리의 저편 1 From the Other Side of Voice 1

1pm-2:50pm	최상일 김지연 Sang-il Choi, Jiyeon Kim 세마홀(SeMA Hall)	할머니의 말과 소리 (발표 및 청취 워크숍) Grandmothers' Words and Voices (presentation and listening workshop)
3pm - 4pm	정은영 siren eun young jung	퍼포먼스 <사랑이 넘치는 신세계> Performance <i>Le Nouveau Monde Amoureux</i>
4:30pm - 5:30pm	이용우 Yongwoo Lee	아시아 디바와 근대성의 목소리들 Asian Divas and The Voices of Acoustic Modernities

10

25

土

서울시립
미술관

S

괴력난신 2 Miracles, Violence, Disorders and Spirits 2

3pm - 4:20pm	리앙 Li Ang	(중-한 순차통역) C ▶ K	왜 여귀를 볼 수 있는가? Why the Female Ghosts Can Be Seen?
4:30pm - 5:50pm	권현익 Heonik Kwon		친근한 이방인 The Intimate Strangers
6pm - 7:20pm	최원준 CHE Onejoon		만수대 마스터 클래스 Mansudae Master Class

10

27

月

계원예대
조형관

K

소리의 저편 2 From the Other Side of Voice 2

1:30pm - 3:20pm	최상일 김지연 Sang-il Choi, Jiyeon Kim		할머니의 말과 소리 (발표 및 청취 워크숍) Grandmothers' Words and Voices (presentation and listening workshop)
3:30pm - 4:20pm	이용우 Yongwoo Lee		아시아 디바와 근대성의 목소리들 Asian Divas and The Voices of Acoustic Modernities
4:30pm - 5:50pm	데이비드 테 David Teh	(영-한 순차통역) E ▶ K	현재에 관해 언급하기: 동남아시아의 동시대와 그곳에 출몰하는 것들 Addressing the Present: The South- east Asian Contemporary and What Haunts It

10

28

火

계원예대
조형관

K

오래된 미디어 1 Old Media 1

4pm - 4:50pm	정서영 CHUNG Seoyoung		일시적으로 모은 오래된 문제들 Old Problems Gathered in a Temporary Manner
5pm - 5:50pm	김용언 Kim Yong-eon		이상한 할머니들 Strange Grandmothers
6pm - 7:20pm	지엔홍 후앙 Chien-hung Huang	(중-한 순차통역) C ▶ K	타이완 풍의 실어증 미디어 Aphasia Media from Taiwanese Touch

10

28

火

서울시립
미술관

S

오래된 미디어 2 Old Media 2

3pm - 3:50pm	박찬경 Park Chan-kyong	워크숍 '뉴미디어 신화와 오래된 것의 상상' Workshop Myth of New Media Art and Imagining the Old World	10 29 水
4pm - 5:20pm	지엔훙 후앙 Chien-hung Huang	(중-한 순차통역) C ▶ K 타이완 풍의 실어증 미디어 Aphasia Media from Taiwanese Touch	계원예대 조형관
5:30pm - 6:30pm	정은영 siren eun young jung	렉처 퍼포먼스 <칼잡이들> Lecture performance Gender Bender Fencers	K

동아시아 신화, 교육, 미술 East Asian Mythology, Education and Art

4pm - 5:20pm	김인희 Kim In-whoe	80년대 굿의 기록과 교육 / 모더레이터 : 한선희 Record of 1980's Gut and Education Moderator : Han Sun-hee	10 29 水
5:30pm - 6:50pm	정재서 Jung Jae-Seo	신화는 귀환하고 있는가? - 서왕모와의 교신을 위하여 Does the Myth Return? - For the Communication with Xiwangmu	서울시립 미술관
7pm - 8:30pm	민정기, 최진욱, 박진아 Min Joung-Ki, Choi Gene-uk, Jina Park	작가대담 Artists Discussion	S

구술과 증언의 예술 The Art of Oral Statement and Record

3pm - 3:50pm	박찬경, 김종길 Park Chan-kyong, Gim Jong-gil	대담 - 비엔날레 큐레이터쉽과 증언의 방식들 Discussion - Curatorship for a Biennale and the Methods of Testimony	10 30 木
4pm - 4:50pm	공선옥 GONG SUN OK	간첩처럼 숨어서 귀신처럼 기도하는 할머니 Grandmother Hiding Like a Spy and Praying Like a Ghost	계원예대 조형관
5pm - 6:30pm	조해준 Haejun Jo	워크숍 '놀라운 아버지-구술과 기록의 여정' Workshop Amazing Father- Journey of Oral Statement and Record	K

안내

주최 서울시립미술관, 경기문화재단
기간 2014년 10월 23일(목) - 30일(목)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서울 중구 덕수궁길 61)
 계원예술대학교 조형관 (경기도 의왕시 계원대학로 66)

문의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4
 T 02-2124-8986 / 8988
 E program@mediacityseoul.kr
 W mediacityseoul.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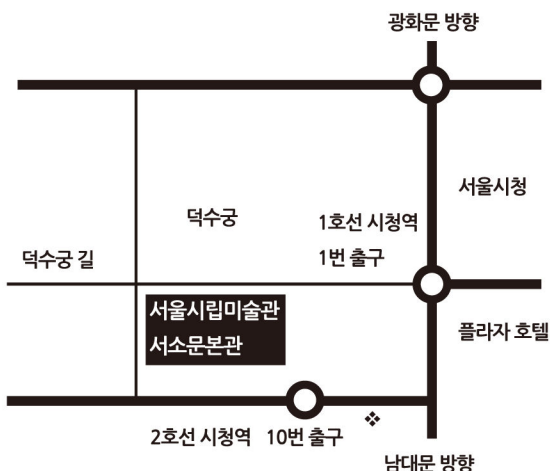
경기문화재단
 T 031-231-7255 W ggcf.kr
 E hyoon.cheong@gmail.com

오시는 길

○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61
 sema.seoul.go.kr

> 버스 : 서소문 하차
 172, 472, 600, 602, 603, 607

> 지하철 :
 1,2호선 시청역 1, 10, 11, 12번 출구



참여신청

(컨퍼런스 장소에 따라 신청 웹사이트가 다릅니다.)

○ 서울시립미술관
 SeMA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4
 웹사이트(www.mediacityseoul.kr)
 프로그램 > 컨퍼런스 > 참여신청

○ 계원예술대학교
 경기문화재단 웹사이트 (www.ggcf.kr) >
 문화&행사 > 교육&행사 > 재단행사
 혹은 컨퍼런스 배너 > 참여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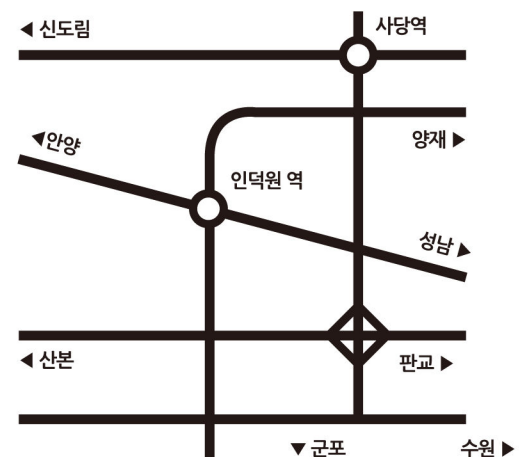
MIRACLES,
 VIOLENCE, DISORDERS
 AND SPIRITS



○ 계원예술대학교 조형관
 경기도 의왕시 계원대학로 66
 www.kaywon.ac.kr

> 버스 :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하차
 502, 540, 441, 1-1, 777, 51, 1650

> 지하철 : 4호선 인덕원역 4번 출구 > 약 50m
 직진 후 편의점 앞 대학셔틀버스 이용 (15분 간격)



주최

희망서울

서울시립미술관

Global Inspiration
 세계 속의 경기도

경기문화재단

협력

Korean Film Archive
 한국영상자료원

계원예술대학교

협찬

HYOSUNG

SAMSUNG
 삼성전자

후원

하나금융그룹

KUKJE GALLERY

김수남사진

iaspis

INSTITUT
 FRANÇAIS

BRITISH
 COUNCIL

GOETHE
 INSTITUT

Government of Western Australia
 Department of Culture and the Arts

NAVER

CJ E&M